

개학 하자마자 잇단 집단감염...허술한 학교 방역

마스크 안쓴 채 교실 곳곳 돌아다니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아 광양 이어 광주서도 중학생들 집단확진...풀어진 방역의식 비상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광주·전남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인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술한 방역 조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학교측도 소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전면 등교로 인한 학교 내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A중학교는 지난 6일 3학년 학생 11명과 2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은 3층 복도, 교실, 음악실, 급식실 등을 오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한 상태다.

방역 당국은 학교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살펴보고 미흡한 운영 사례를 찾고 있다.

앞서, 교육 당국은 전면 등교 과정에서 필요한 학교 내 방역 지침을 마련해 내놓은 바 있다.

학교 일과 시간 중 마스크 상시 착용, 교실 입실 전 발열검사, 개인물품 사용, 책상 소독, 수시로 창문열어 환기(최소 1시간 마다 1회 이상) 등을 제시했다. 쉬는 시간 학생들 간 불필요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해달라고도 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급식실에서는 식사 전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반드시 해야 하고 배식대기 시간에도 적정간격(최소 1m 이상)을 유지하며 대화는 하지 않아야 한다. 급식실은 상시 환기하고 지정좌석제가 운영됨에 따라 식사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식사를 해야 한다.

교실과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 학교 관계자들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방역 당국은 북구 중학교의 경우 이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측은 아이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주문하

고 잘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마스크 착용 규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같은 집단확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다.

광양 B중학교 확진 사례도 비슷하다. 지난 4일 B중에서는 30명(학생 22명 가족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부실한 장비에 허술한 방역 지침 준수 사실 등이 확인됐다. 학교 현관에 설치된 발열 체크기의 경우 중학생들의 미열을 잡아내지 못했고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는 게 방역당국 조사결과다.

활동량이 많은 중학생들은 쉬는 시간 등에 폐지에 몰려다니거나 빈번하게 다른 반 교실을 오가며 친구들과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에어컨을 가동하면서도 실외 창문을 열지 않아 환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광주시 서구 C 고교에서도 지난달 22일부터 학생 14명을 비롯, 가족 6명 등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학력 격차, 정서적 결핍 등을 우려해 전면 등교를 결정한 만큼 방역 대책 준수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학년일수록 교사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마스크 착용을 잘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스크 착용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철저한 지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많은 청소년들을 몇몇 교사들이 통제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역의 기본이 무너지면 학교는 집단감염의 가장 취약한 장소이다”면서도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생들 전수검사 총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7일 오전 1~2학년 학생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멈추고 난개발 아닌 환경 살리는 계획부터 세워라”

광주지역 환경단체 성명

‘광주 제 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광주 일부 9월 6일 6면)를 둘러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제 절차를 잠시 멈추고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편안한 선택 역할을 할 도산 하천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등산 일대 생태계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환경을 살리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부터 수립하라는 요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등과 공동으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뤄진

졸속 조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제 4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치가 해제되면 수원지 일대 난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기능이 후퇴되고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4수원지를 비상 수자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 환경 개선과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 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목소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장흥 50대 잡았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씨(광주일보 8월 31일 6면)가 도주 17일 만에 붙잡혔다.

7일 법무부와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 6일 밤 11시 35분께 장흥군 장흥읍 정남진 장흥도요시장 골목에서 검거됐다.

마씨가 검거된 장소는 마씨 주거지에서 도보 7분 거리로, 당시 순찰 중이던 장흥서 읍내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마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마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

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6년 출소했다.

마씨는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법원의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21일 훼손하고 달아났다.

전남경찰은 마씨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끝나는데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56)은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재판부의 일침 “사람 죽었는데...합의 했다고 사안 가볍게 보나”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는데...”(판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7일 법정에서 선 A(43)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자신을 변호인과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웃으며 주고받던 재판부의 편안한 분위기에 익숙해 지려는 순간 피고인들 얼굴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법정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변호인과 상의하다 재판에 부를 서류 작성 등에 관여했던 직접 관련자를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회사 관계자 등이었다. 지난 4월 17일 곡성군 오곡면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리를 맡은 현장 관리자 B(71)씨를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굴착기 운전자 A씨는 후진을 하다 현장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었다. 당시는 점심 시간이라 후진 과정에서 상황을 알려줄 유도 요원 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합의했다고? 사람이 죽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피고인이 “점심 시간이라 유도 작업을 맡을 사람도 없었고 현장에서 일일이 인부, 사람을 따라다닐 수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서는 “그게 과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굴착기가 작업하는 중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다. 첫 재판에 긴장한 채 들어섰다가 인정신문을 거쳐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 보며 다소 여유를 찾는 듯 했던 피고인들 얼굴은 강한 톤으로 지적하는 판사의 목소리에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